전국 지역별 고교생 수 격차심화 “학생 수 없어 1등급 진입 불가능”

17개 시도 고교 평균 학생수 격차
올해 136.7명… 매년 커질 전망

수강자 4명이면 1등급 못받고
5~37명까지 1등급 1명에 불과
교육특구 ‘내신에 유리’ 분석도

전국 고교별 학생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 향후 학군지 선택에 고교 학생 수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전망이다. 교육 경쟁이 심한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가 내신을 받기 어렵다는 통념과 달리, 학생 수가 많아 내신을 받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 평균 학생 수 격차는 지난해 고3을 지낸 2025학년도 136.7명에서 2026학년도 150.4명, 2027학년도 165.0명으로 매년 커질 전망이다.

2025학년도 지역별 기준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경기 249.1명, 세종 226.6명, 서울 226.4명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강원 지역(112.4명)과 136.7명의 격차를 보였다.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를 예정인 현재 고3은 경기도와 강원지역이 각각 278.7명, 128.3명으로 격차는 150.4명까지 늘었다.

현재 고2 학생인 2027학년도에는 지역별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세종 283.9명, 경기 273.1명, 서울 238.4명으로 순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가장 적은 강원 지역(118.9명)과 격차가 165명까지 벌어진다.

문제는 현행 고교 내신 산정 방식에 따라, 과목 수강자가 적은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교 내신은 학교별로 과목수강자 수 대비 4%까지 1등급이 주어지는 구조로, 전체 수강자가 많을수록 내신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많다. 11%까지는 2등급, 23%까지 3등급으인 9등급제로 나뉜다.

반면,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실력과 상관없이 1등급 자체 진입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고교 수강자 수가 4명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0명이고, 5~37명까지 1등급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재 고1이 수능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과목수강자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 ‘9등급제’보다 완화되지만, 수강생 수에 따른 유불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운 셈이다. 5등급제에선 34%까지 2등급, 66%까지 3등급을 받는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교육 접근성이 높아 경쟁이 심한 강남·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가 내신을 받기에 불리하다는 통념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결과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교 내신을 따기 유리하고, 이는 대입 실적과도 연결되면서 상황에 따라 오히려 교육특구 지역이 학교 내신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고교당 평균 학생 수 격차는 심화한다. 서울 25개구에서 고교당 평균 학생수 격차는 ▲2025학년도 159.8명 ▲2026학년도 174.8명 ▲2027학년도 195.8명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5학년도는 서초구 고교당 평균 학생 수가 290.5명으로 가장 많고, ▲양천구 287.4명 ▲은평구 275.7명순으로 높다. 반면 중구는 130.7명으로 학교당 학생 수가 가장 적다. 서초구와 중구의 학생 수 평균 격차는 159.8명이다.

2026학년도는 ▲양천구 325.4명 ▲서초구 316.5명 ▲강남구 304.5명순으로 높고, 용산구가 150.6명으로 가장 낮으며, 최대 격차는 174.8명이다. 2027학년도는 ▲서초구 332.4명 ▲양천구 321.8명 ▲강남구 301.5명순으로 높고, 성동구가 136.6명으로 가장 낮아 ‘195.8명’의 격차를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입간판규제 완화 등 10건 규제철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 최대 450만원까지 인정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하기로

서울시가 주거 위기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청 전경.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6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옥외광고 소재를 제한했던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규제철폐안 74호에 따라,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76호에 따라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자산 차감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한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도 완화(규제철폐안 77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78호):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 가능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79호): 장학금 소득기준 적용 시점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로 확대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80호): 제안서 등 계약서류 온라인 제출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81호): 외국인단체 MICE 지원금 여행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82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제로 타 사업 신청 시 활용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엄종화 세종대 총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세종대에서 열린 협정식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기후변화연구원 ‘탄소중립’ 맞손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협정 체결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최근 교내 집현관 소회의실에서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정식에는 세종대 엄종화 총장, 김형욱 대외협력처장, 기후에너지융합학과장 전의찬 교수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동일 연구원장, 이충국 기후정책1연구실장, 김필곤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어젠다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정식에서 엄종화 총장은 “세종대는 전의찬 교수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기후변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련 인재를 배출한 대학”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국가적 과제를 고민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동일 연구원장은 “세종대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와 관련된 인재 양성에 힘쓰며, 앞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더욱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42개국 유학생 ‘한 자리에’

‘제1회 국제교류의 밤’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소재 수정캠퍼스에서 국제학생과 국내 재학생과 국제학생이 다함께 참여하는 ‘제1회 국제교류의 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42개국 및 지역에서 온 115명의 국제학생과 이들의 대학생활을 돕는 108명의 성신글로벌프렌즈(버디, 전공멘토링, 튜터링), 일반 재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팀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한 사토 린(일본, 디자인과) GKS 장학생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팀 게임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번 행사는 국제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대학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재학생들에게는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성신여대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외 재학생 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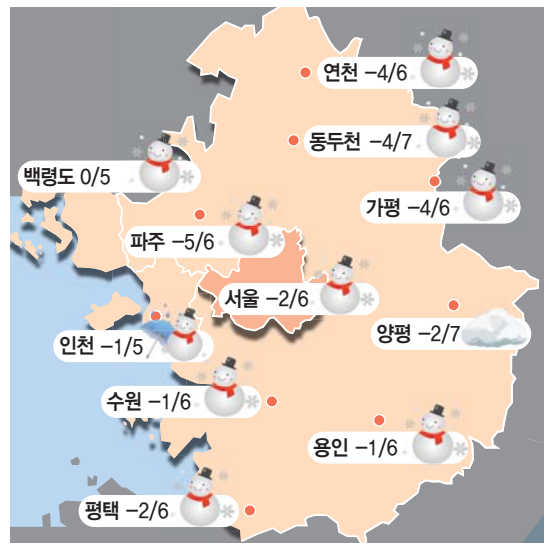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1 | 해짐 / 18:41

3월
17일 (月)
음력 : 2월 18일

수도권 날씨
-2 ~ 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 트럼프, 이민추방에 18세기 전시 법 소환… 법원 기각
▲美 트럼프, 예멘 사나 폭격명령에 ‘최소 24명 사망’ /사진 뉴시스

▲美 연준 오는 18~19일 기준금리 결정…동결 전망
▲세계1위 배터리업체 中CATL…순익 절반 5조원 현금배당

▲日, 車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의무화 추진
▲알제리군, 모로코에서 밀수한 마약류 2.5톤 압수